

2016. 5.

「2016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포럼 in 도야마」 자치단체 환경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

- 기 간 : 2016년 5월 22 ~ 5월 25일(3박 4일)
- 방문국 : 일본(도야마현)
- 연수자 : 4명(도 2, 충남연구원 2)

차 례

I	환경포럼 개요	3
II	주요 활동결과	5
①	동북아시아 환경 파트너 포럼 in 도아마(2007)의 성과	5
②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로 진행해야 할 환경보전 활동	6
③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13
	〈별첨〉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14

「2016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포럼 in 도야마」 자치단체 환경전문가 포럼 결과 보고서

I 환경포럼 개요

○ 방문목적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자치단체들이 모여 기후변동 등 지구 규모의 문제가 동북아시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환경보전 방법과 정보·데이타를 공유하기 위해 노력
- 범세계적 시점으로 지역의 환경보전을 이끌 수 있는 인재육성을 목표로 시민 등의 협동으로 활동을 진행 노력
- 동북아시아에서 선진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이후에도 대화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

○ 일정 및 대상국가

- 일정 : 2016. 5. 22 ~ 2016. 5. 25(3박 4일)
- 대상국가 : 일본(도야마현)

○ 연수단 구성

순번	소 속	직 급	성 명	성별
1	충청남도	환경3급	신동헌	남
2	충청남도	행정6급	윤태근	남
13	충남연구원	연구소장	최진하	남
14	충남연구원	책임연구원	신우석	남

○ 연수 세부일정

일 자	방문국가	주 요 내 용
5/22(일)	일본 (고마츠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출발 ■ 일본 고마츠 국제공항 도착 ■ 일본 도야마현으로 이동
5/23(월)	일본 (도야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전문가 포럼 회의 in 도야마 ■ 도야마현 지사 환경리셉션
5/24(화)	일본 (도야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방문
5/25(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 국제공항 도착

II

주요 환경 포럼 내용 및 활동 결과

1 동북아시아 환경파트너즈 포럼 in 도야마(2007)의 성과 발표

○ 목적

-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의 경제계, 학계,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동북아시아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산학관 제휴의 방향이나 역할분담 등에 관한 의견교환을 실시하는 것으로 파트너십 강화를 도모하고 환경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연결해 나감

○ 동북아시아 환경파트너십 도야마선언에 대해

- 동북아시아지역 환경보전에 관해 활발한 논의를 실시하고 참가자 전원이 지역차원에서 환경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인식, 산학관 연계를 통한 구체적인 활동으로 진행을 위한 한걸음으로서 [도야마 선언]을 채택하였음
- [동북아시아 환경파트너십 도야마선언]의 포인트
 - 광역적 모니터링체제 구축을 향한 “황사 시정조사”, “해변의 표착물조사”
 - “국경없는 자연” 등 국제포럼 참가를 통해서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 인재육성을 위한 “동북아시아지역 환경체험 프로그램” 등 지역차원에서 구체적인 활동을 산학관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함

○ 동북아시아 환경파트너십 도야마선언을 바탕으로 한 개별 프로젝트 실행

프로젝트 명	실시년도	개요
광역적 환경모니터링 체제 및 네트워크 구축		
황사 시정조사	2009~2013	-동북아시아지역 산학관이 연계해 시정조사 실시 (5개국 10자치단체 91 단체가 참가)
해변의 표착물 조사	2000~2015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가 연계 해안 표착쓰레기 조사 실시
환경보전을 위한 기술정보 공유		
국경 없는 자연	2006~2015	-러시아 연해주에서 폭넓은 주체가 참가 동북아시아 지역 환경문제에 대해 논의
국제환경협력을 넓어질 인재육성		
동북아시아 환경 체험 프로그램	2008~2015	-한중일러 청소년들에게 환경보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며 스스로 행동하는 인재를 육성

② 동북아시아지역에서 새로 진행해야 할 환경보전 활동

◎ 서브세션 1: 기후변화

○ 중국‘랴오닝·동북아시아도시, 에너지와 환경국제테크놀로지 연구원’ 건설계획(중국 랴오닝 대학, 송 유타오)

- 도시의 발전과 에너지·배출감축 균형을 어떠한 방법으로 병행해 나갈까에 대해서는 동북아시아지역 모든 도시의 직면 과제가 되고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도시가 발전하면서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 랴오닝대학에서는 국내외의 대학이나 환경관련 기업 등과 협력 해 중국 ‘랴오닝·동북아시아도시, 에너지와 환경 국제테크놀로지 연구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도시, 에너지와 환경국제테크놀로지 연구원’은 대학과 기업간의 산업·교육·연구에 관한 연계모델로서 공동으로 기술연구·개발, 기업이전 및 전시장을 조성한다. 동북아시아에서 선진적인 환경기술성과의 산업화를 시작으로, 환경에너지 기술혁신(에코이노베이션), 환경산업 발전을 목표로 동북아시아의 환경개선을 촉진함.

○ 연습선을 이용한 도야마만의 해양환경조사(도야마고등전문학교 상선학과, 지바 하지메)

- 2004년부터 “와카시오마루”의 CTD·ADCP시스템을 이용해서 도야마만의 정기적인 해양관측을 실시하고, CTD에 대해서는 신미나토 앞바다 약 5 해리의 정점(수심약 700-800m)에서 월척상 한달에 한번 계측을 실시하고 있음.
- 이러한 관측을 10년 이상 걸쳐 정점에서의 CTD 관측으로부터, 도야마만에서는 3층의 수괴구조가 존재하고 그것이 거의 정상적인 계절 변동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수괴구조의 경계선에서는 해수밀도의 차이에서 유동을 발생하고 익석을 ADCP로 파악하고 있음. 이러한 수괴 구조나 흐름 파악은 어업, 해양오염 감시와 예측, 선박의 안전운항, 표류물 조사, 해안시설설계 기초데이터로 귀중한 자료가 됨.

○ 기후변화대응 정책(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박주택)

- 강원도의 여건을 보면 자연환경으로는 총 면적의 약 82%가 산지로서 전국 산림 면적의 21% 차지하고 한국 생태축의 중심인 자연생태계의 보고로 알려져 있음. 또한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로 맑은 물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기후변화대응 정책
 -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 중장기 온실가스(GHG) 감축 목표 설정
- 친환경 청정에너지 보급 확산
- 그린리더 활동 및 그린스타트 운동 지원
- 탄소포인트제(C-point) 실시 등

○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응 전략(충청남도, 윤태근)

-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대한민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몇가지 있음
- 첫 번째, ETS(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연계된 농가-기업 온실가스 감축 상생모델 사업임.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원인자(화력발전소 등)로써 사회공헌 측면에서 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농가는 지원받은 시설을 통해 감축한 탄소 배출권을 서부발전에게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될 예정임
- 두 번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 기후환경조사 사업임. 최근, 초 미세먼지 유발하는 원인으로 석탄 화력발전소가 지목되는 등 주민건강에 대한 우려와 관심이 확산됨에 따라 화력 발전소 주변 기후 환경 분야 등 과학적 실증자료를 확보할 예정임. 이와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재원 확보 및 환경개선을 추진해 나아갈 예정임
- 세 번째, 최근 농촌으로 이주하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적정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에너지 저소비, 친환경적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정기술교육센터 설치, 교재 제작, 교육프로그램 운영, 적정기술 경진대회 등 추진할 예정임
- 마지막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수소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음. 작년 수소스테이션을 충남도청 이 전신도시에 설치하고, 관용차를 수소차로 교체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연안 생태계 활용 방안 모색(충남연구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최진하)

- 최근 산업발전 및 인구증가, 연안 개발 등과 더불어 기후 변화에 의해 많은 연안 지역에서 하구, 습지 및 갯벌 등이 파괴되고 소멸되고 있음. 하지만 최근 많은 연구들에 의해 연안 지역과 그 장소에 형성된 생태계의 기능에 대한 역할과 효과들이 재평가 되고 있음. 특히, 하구, 습지 및 갯벌과 더불어 그곳에 서식하고 있는 식생들(예를 들어, 염생식물, 해초, 채조류 등)은 경제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 생태계의 가치 또한 매우 뛰어난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음.
- 연안 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기초 생산자에 의한 이산화탄소 흡수(Blue Carbon) 및 육

상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물질 제거 등이 매우 탁월하다고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한 식물 생태계를 원활하게 활용, 즉 Blue Carbon 흡수원으로 활용함으로써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적응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또한 기후변화에 의해 야기되는 다양한 환경문제 등을 해결할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 해안생물조사에 대해서(도야마현, 구마가이 가즈야)

- 동북아시아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서 각 지역에 서식하는 생물에 관한 정보수집, 지표생물의 서식조사를 실시하는 것과 동시에 이 조사를 통해서 일반시민·청소년들이 바다생물에 흥미를 갖게 하고 환경보전·생물다양성 보전의 의식함양을 도모함.
-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나 관계기관과 협력해 해안생물·지구온난화 지표생물에 관한 광역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정리해 국내외에 발신함.

◎ 서브세션 2: 생물 다양성

○ 랴오닝성의 생물다양성 보호와 발전(랴오닝성 환경과학연구원, 류 주춘)

- 성 정부는 생물다양성의 보호를 매우 중시해 일련의 보호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랴오닝성에서의 생물 다양성 활동은 커다란 성과를 올렸음.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한 법 체계가 점차 갖추어져 일련의 생물다양성 보호에 관련된 법규를 제정하고 랴오닝성에서의 생물 다양성 자원 보호와 이용을 효과적으로 촉진할 수 있었음.
- 오랜기간 노력의 결과로 생물다양성 회복 속도가 빨라져 다양성지수가 초기의 0.47에서 0.51까지 올라 4포인트나 상승했음. 보호구내의 각 생물 군체의 종류도 어느 정도 높아져 유관속 식물이 원래의 21과 123속 215 종류에서 58과 159속 229 종류까지 높아졌음. 어류가 12종류에서 19종류까지, 조류가 35종류에서 62종류까지(쌍대 하구국가급 자연 보호구를 제외), 포유류동물이 3종류에서 7종류까지, 곤충이 7목 36과에서 8목 45과까지, 원생 생물이 10속 25종류에서 26속 40 종류까지 증가했음.

○ 따오기의 야생복귀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니가타현 현민생활·환경부, 고바야시 테츠야)

- 니가타현에서는 “타오기와 공생하는 풍요로운 자연의 지역사회” 실현을 목표로 사도의 풍요로운 자연환경 재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이나 국가, 현, 시 등의 많은 관계자가 함께 연계해서 따오기의 보호증식, 야생복귀 추진을 진행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니가타현에서는 따오기가 자연계에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재생하기 위해 국가나 도시, 지역주민들과 함께 따오기의 먹이가 많은 비오톱 조성이나 농약에 의지하지 않는 생물

을 육성하는 친환경적인 쌀 만들기 등 따오기와 공생하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시카와현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마을산·바다의 이용보전 활동(이시카와현 환경부 온난화·마을산 대책실, 구라모토 가즈오)

- 이시카와현에서는 현면적의 약 60%가 부락과 밀접한 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한 사람들의 생활과 깊은 관련을 가지는 바다도 도처에 존재함.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생활양식의 변화와 인구감소·고령화 등의 영향에 따라 본 현에 존재하는 마을 산에 대해서도 황폐화가 진행되고 있음.
- 따라서 본현에서는 “마을산·바다”를 보전하고 또한 마을산·바다의 지역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생물다양성 보전에 노력하고 있고, 이번에는 고향산과 바다의 이용보전 활동을 하고 있음.

○ 자연과 공생하는 후쿠이 사회만들기(후쿠이현 안전환경부 환경정책과, 가토 히로시)

- 후쿠이현에서 진행하고 있는 “자연과 공생하는 사회 만들기”에 대해서 생물다양성 보전이나 자연 재생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를 소개함.
- 황새귀환 프로젝트
- 미카타고코의 와이즈유스 프로젝트
- 후쿠이현 마을산 마을바다호수 연구소 설립
- 스이게츠코년호의 활용

○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시행계획(강원도 녹색국 환경과, 이종명)

- 인구 증가로 인한 도시화와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훼손에 대처하고 기후 변화 등에 따른 온난화, 오존층 파괴 등으로 미래환경이 위협받고 있는 등 생물다양성에 대한 지속적인 압력이 배가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 주도로 진행중인 생물다양성의 관리를 보다 구체화 하고 현장에 가깝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지역적 생물 다양성 전략에 대한 정립의 필요성에 따라 국가의 생물다양성 전략과 연계한 강원도 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에 따른 이행계획을 수립 하였음.
- 제12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우수한 강원도 생물다양성의 가치를 보전하고 극대화할 수 있는 체계 확립을 위한 생물다양성의 주류화.
-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노력 강화

- 생물다양성에 대한 압력 및 위협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한 관리활동 강화
- 강원도의 생태계서비스를 활용한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
- 생물다양성 관련 기관 설립을 통한 생물다양성 관리의 체계화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지역간 협력 강화 등 6개 분야 추진

○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의 주요사업 소개와 향후 비전(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이찬우)

-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2008년 제 10차 람사르협약당사국총회의 경상남도 개최를 계기로 2008년 7월 1일에 설립하였음. 설립목적은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 이후에도 습지를 비롯한 경남도의 환경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호하며, 도민들의 환경보전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함. 설립 이후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으며, 생물다양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6개의 주요 사업을 추진 중임.
- 제비 보호를 위한 조사 및 교류 사업
- 논습지 및 둠벙 생물다양성 보전활동
- 따오기 복원사업 지원
- 생물종 모니터링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생물다양성 총 조사
- 경남의 대표생물 24종 보전활동

○ 하바로프스크지방의 생물상에 대해서(태평양수산업 과학연구센터, 알렉산더 드레인)

- 하바로프스크지방은 오호츠크해와 동해쪽에 접해 있음. 여름의 동해쪽 연안 부근의 해수온도가 30년 사이에 2도 올라갔음. 오호츠크해와 아무르하구에서는 이러한 변화는 보이지 않음.
- 러시아 연방 극동지방의 상황은 다른 도시 지역과는 조금 다른 상황임. 다른 많은 지역에서는 인간활동에 따른 영향이 나타나지만 극동지방에서는 정반대의 문제를 안고 있음. 혹독한 기후인 극동지방은 인구가 적고 많은 천연자원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이 때문에 해양생물다양성 보호에 대해서 극동 지방으로서는 아직 긴급한 과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음.

◎ 서브세션 3: 해양쓰레기

○ 유엔환경계획(UNEP) 및 북서태평양지역해행동계획(NOWPAP)의 해양쓰레기 대책(유엔환경계획 북서태평양지역해 행동계획, 알렉산더·트카린)

- 2005년 유엔환경계획이 해양쓰레기에 관한 분석을 포함한 최초 제안하였으며 국제연합총회에서도 제의한 것 중 2개의 의제가 해양쓰레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논의함. 그 후 UNEP은 유엔식량농업기관이나 유네스코 등의 기관과 밀접하게 제휴하며 더 많은 보고서를 발행해 왔음. 2009년에는 전세계 해양쓰레기에 관한 보고서를 발행하고 그 후도 이 문제 조사연구에 관련되어 있음. 현재는 누구라도 이 조사연구 결과를 열람할 수 있음.
- UNEP의 해양쓰레기 대책활동의 일부로 남동태평양, 북서태평양, 흑해, 페르시아만·에덴만, 동아시아해, 카스피해, 북동대서양, 지중해, 카리브해, 발트해 각 해역에서의 행동계획이 개발되었음. NOWPAP의 경우 2008년에 회원국들이 해양쓰레기에 관한 NOPAP 지역행동계획을 승인한 이후 여러 가지 활동을 실행하고 있음.

○ 해양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도야마대학, 야마모토 마사시)

- 본회의에 참석한 4개국은 공통의 바다를 공유자원으로 이용하고 있음. 이 바다를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은 이 4개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임. 그런 이 바다는 경제학에서 “공유재산”이라 불리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그것은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라 불리는 특징으로, 이 두가지가 없는 재물을 “사적재산”이라 부름.
- 간단히 말하면 시장 메커니즘이 잘 기능하기 위한 조건은 5개 정도 있지만, 그 중에서 “외부비용이 없을 것”과 “경제가 사적재산만으로 될 것”이 있음. 이 말은 해양쓰레기 문제해결을 시장경제에만 맡겨두는 것은 시장지상주의 입장에 서있는 경제학자들도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임. 시장 밖에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한데 그것은 NGO 일지도 모르고 지방정부일지도 모름.

○ 소베츠크·가반스키지구에서 청소년창조센터“파라다”에 의한 환경교육·계발 실시에 대해서 (소베츠크·가반스키지구, 청소년창조센터“파라다” 관장, 빅토르 브라센코)

- 청소년 창조센터 “파라다”에서는 하마로프스크지방 소베츠크·가반스키 지구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10명의 지도자가 12개의 프로그램을 통해 환경교육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 나의 환경, • 청소년 환경보호가, • 식물의 환경, • 인간과 숲, • 자연의 닥터, • 놀이속의 환경, • 소베츠크·가반스키지구의 환경, • 마음의 눈으로 본 자연, • 한 방울, • 자연 감정인
- 청소년창조센터에서는 청소년들의 인간형성 발달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협력체제를 따르는 지역이 크게 퍼져나가고 있음. 북방,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선주민 연합과 함께 “최초의 홍연어”라는 아무르강 주변의 원주민의 놀이를 도입한 민족 축제를 실시하고 있음. 이 활동의 우선적인 방침은 해양생물 자원의 숫자에 관련된 환경문제의 영향을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음.

○ 연해주 폐기물처리 기업단지 만들기 모의프로젝트에 대해서(AVA 트레이드 유한회사 사장/리사이클 업자연맹 업무집행이사, 알렉산더 파리치코프)

- 폐기물 중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정쓰레기, 식품폐기물, 건설 폐기물, 난방설비관련 폐기물, 가정 대형 쓰레기, 그리고 병원, 식당, 호텔, 슈퍼마켓 등의 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 등임. 바다로 흘러가는 그 쓰레기는 연안 지역에 있어서 특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
- 2013년 러시아 연방정부에서는 폐기물 처리 종합 전략이 채택되었음. 주된 목적은 폐기물에 포함되어 있는 성분을 리사이클원료로서 이용하는 것임. 현 단계의 러시아에서는 폐기물 리사이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폐기물처리 시설정비에 투자를 들 수 있음. 효율적이면서도 수익률이 높은 폐기물 리사이클 기업을 만드는 데에는 큰 가능성이 있음.

○ 도야마현의 해안표착물 대책에 대해서(도야마현 생활환경문화부, 구마가이 카즈야)

- 도야마현에서는 해안표착 쓰레기 발생 원인 억제를 실행하기 위해 비닐봉투 무료 배부 폐지 활동, 상하류지역 연계활동으로 상류역에서 해안까지 청소활동, 환경교육으로 물의 혜택과 해안청소체험 투어 및 해변의 표착물조사 및 표착물 아트제작 등을 하고 있음.
- 2015년 11월 동북아시아지역 자치단체등이 모여 해안의 표착물대책을 담당하는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정보교환등을 실시함으로써 대책의식함량과 실천행동촉진, 대책연계강화 등을 도모하고 배출억제책 등을 추진하였음.

③ 동북아시아 지역의 환경파트너십 추진을 위해 / 총평

○ 2016 동북아시아 자치단체 환경전문가회의(충청남도 환경녹지국장, 신동헌)

- 충청남도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기후변화 적응능력 향상을 위한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시행하고 있음. 기후 적응 능력 향상을 위해 최선의 과학적 근거 및 기술을 기반으로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을 분석한 바 있음.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계층 및 취약지역 등을 고려한 기후변화 적응 5개년 계획을 시행하고 있음. 아울러 기후변화 완화 대책으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대한민국은 지난해 6월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여방안(ISDN)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제 21차 파리 당사국총회에서 신 기후체제 협상이 타결과 관련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4개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그리고 중앙정부를 이끌 지방정부차원의 새로운 사업을 준비중에 있음.

- 우리는 상호 연결된 세계에 살고 있음. 동북아시아지역은 기후변화뿐 아니라 미세먼지, 해양환경문제에 대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협력해야 함. 각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익한 정보, 데이터 공유한다면 동북아시아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에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지역적, 국가적 행동을 이끌어 내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함. 후세들은 우리에게 의존함.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서 그들의 미래를 빼앗을 수는 없음. 우리 모두 동북아시아지역의 환경 보전에 일조하는데 전력하여야함.



<도야마현 지사 개회식>



< 환경포럼 회의실 전경 >



<충청남도 대표단 일동 기념촬영>



< 환경포럼 참석자 기념촬영 >

<별첨>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 도야마현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방문

- 일본의 4대 공해병의 하나라고 불리는 이타이이타이병은 1910년대 전후부터 도야마현의 진즈강 유역에서 발생해, 그 유역의 물을 이용하는 환자나 그 가족, 현지 주민 등 특히, 35세 이상 여성에게 심각한 영향을 끼침.
- 이 병은 “이타이, 이타이(아프다, 아프다)”라고 울부짖는 것에서 이 이름이 붙여졌다고 함. 이 병은 1910년대 전후 무렵부터 발생해, 가미오카 광산(기후현 히다시)에서 배출된 카드뮴이 진즈강의 강물과 강 유역을 오염시키고, 이 강물이나 오염된 토지에서 자란 쌀 등을 통해 체내로 들어감에 따라 발생하게 됨.
- 이후 진즈강 유역의 주민을 괴롭혔던 원인불명 병은 1955년에 “이타이이타이병”으로 신문에 소개되고, 또 일본 임상외과 학회에서 발표됨으로써 주목받게 됨. 1968년 후생성은 이타이이타이병이 카드뮴 만성 중독으로 발생하며, 이 카드뮴은 가미오카 광산에서 배출된 것 이외에는 발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견해를 제시함.
- 그후 기업으로부터 피해자 배상외에 공해방지와 오염토양 복원에 관한 3개의 협정서 및 서약서를 주고 받게 됨. 그 중에서도 공해 방지 협정은 주민에 의한 가미오카 광산 현장 조사를 기업측이 받아들이는 등 그 당시 상황에 비추어 획기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져, 진즈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됨.



<이타이이타이병 자료관 안내문>



< 이타이 이타이 자료관 내부 자료들 >